

싸우면서 닳는 것인가 불을 불로 끄려하는가

‘종교평화선언 초안’ 사부대중 토론회…다양한 목소리

최근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가 발표한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진의를 밝히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화쟁위원회는 지난 1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종교평화선언(초안) 사부대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화쟁위는 지난 8월23일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과 언어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겠다”며 종교화합을 위해 솔선수범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종교평화선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교계 일부로부터 ‘기독교의 창조론 인정’, ‘포교포기선언’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반박과 해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화쟁위원)는 토론회에서 “이번 선언은 종단 내적으로 보면 자성과 쇄신이라는 결사의 기초 하에서 불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실천”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불교적 처방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논객들의 비난에 대해선 “한물간 지 오래인 서구 그리스도교를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한국 기독교의 단순한 맹목성을 한

사회 갈등과 분쟁 극복
대통합 모델 제시 차원

종교평화 실현하기 위한
법안청원 작업도 준비중

포교 목표는 신행 성숙
참자유 얻는 데 있어야

사회적 자신감 떨어진
불자 마음부터 움직이자

‘아쇼카 선언’ 부제는
이웃종교 공감엔 장애

국불교에서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관념적 선언이 아닌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종교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청원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화쟁위의 향후 계획도 소개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스님 역시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펼치는 포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다”며 “불을 불로 끄지 않고 불을 불로 끄자는 것이 종교평화선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불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가 걸어야 할 길을 새삼 환기시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포교의 목표가 양적 팽창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신행의 성숙을 통한 참자유를 얻게 하고, 기복을 넘어 교양과 상식이 통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자”고 제언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불교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불교도들이 지금처럼 피해의식에 젖어 기독교를 뒤에서 비판하는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종교평화선언의 부제인 ‘아쇼카선언’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많았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특정종교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라서 이웃종교로부터 논리적 정서적 공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며 “아쇼카왕이 아무리 진정한 참회를 했더라도 21세기를 사는 시민들이 폭력과 전쟁이라는 업보의 그림자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종교화합을 위한 방법으로, 개신교를 모방한 호교론(護敎論)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 방문
韓-佛 문화발전에 중요”

주한 프랑스 대사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3일까지 프랑스를 순방하는 가운데, 주한 프랑스대사가 지난 1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엘리자베트 로랭 대사(오른쪽)는 “총무원장 스님의 프랑스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 특히 문화와 종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프랑스 불자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나라의 미래에 책임감 느껴”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총무원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나경원 의원은 종교지도자 예방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데 이어 이날 정진석 추기경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잇따라 예방했다.

제187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중앙총회 제출 의안을 점검하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집무를 수행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나경원 최고위원의 예방을 받고 근황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방북,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하나 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당내 서울시장 후보 선출 관련 논의에서 무엇보다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 한다”면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후보 출마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정치인이니 잘 하시리라 믿는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하나로마트서 ‘물은 감로수’ 사면

승려노후복지 기금 적립된다

조계종이 재정구조 다변화와 승려노후복지기금마련을 위해 하이트진로그룹 석수&퓨리스와 생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2400여 곳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물은 감로수’를 살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도문스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하나로마트본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하나로클럽 25곳을 비롯해 2400여 곳의 하나로마트에서 종단 생수인 ‘물은 감로수’를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석수&퓨리스와 산업재산권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산은 산이요 물은 감이로다’를 출시해 사찰 중심으로 도매 판매를 해왔지만 할인점 등 일반매장판매가 병행

되지 않아 불자와 일반인들이 소매단위로 손쉽게 구입할 수가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조계종은 하나로마트 입점을 계기로 소비자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물은 감로수’라는 새로운 이름과 디자인으로 500ML와 2L 두 종류를 선보였다. 오는 10월1일부터 전국 2400여 곳의 하나로마트에 물은 감로수가 판매됨에 따라 사찰과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청수공양물이나 식수 등으로 물은 감로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총무원 재무부는 ‘물은 감로수’의 하나로마트 입점을 통해 종단의 수익구조 다양화와 목각사업 등 재정을 확충하고, 하나로마트는 매출 증대를 통해 상생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지원스님’ <1면에 이어>

성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원스님은 1964년 3월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4월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신흥사 총무국장 겸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삼보사와 양주 육지장사 회주 소임을 맡고 있다. 제9대와 14대, 15대 중앙총회의원으로서 종단발전에 앞장서 왔다.

팔재계수계실천법회
포교사단 24~25일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종단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제9교구 본사 동화사에서 제9회 8재계수계 실천대법회 및 포교원 정기연수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2000여 명의 포교사가 참석하는 이번 팔재계수계 실천법회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와

금강경 독경경진, 8재계수계법회, 보살계 수계, 팔공산 갖바위 약사여래 참배가 진행된다. 또 최근 배출된 22명의 전문포교사 및 574명의 신규포교사 품수식과 함께 포교사단의 지난 역사를 기록한 <포교사단 10년사> 봉정식도 진행된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팔재계수계 실천법회는 불법홍포에 앞장서는 포교사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지고 서로 교류하는 자리”라며 “전국의 많은 포교사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본 말사 주지인사

정수스님
남양주 봉선사

대원스님
천안 각원사

경봉스님
용인 법륜사

법선스님
광주 문민정사

선탄스님
진주 보경사

법일스님
고양 법화사

선양스님
춘천 석림사

대형스님
양주 육지장사

원공스님
서울 보경사

보천스님
문경 해국사

설진스님
산청포교당

범수스님
창원 광산사

광진스님
대전 죽림정사

도요스님
광주 원각사

동초스님
광주 정안사

법연스님
순창 강천사

법승스님
의정부 원흥사

호산스님
양평 운문사

도운스님
고흥 수덕사

9월16일
총무회의
결과

월운큰스님의
능엄경강의 수강생 모집

봉선사 조실이신 월운큰스님을 모시고 능엄경강좌를
개설하였으니 관심있는 불제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불교의 哲理와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전
▶불교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初學者(초학자)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전

■개 강 _ 10월 4일(6개월 과정)
■강 의 _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문 의 _ 봉선사 포교국 070-8802-1953
※불교의식반(기초 전문반), 참선반, 다도반, 불화반수강 가능

월운큰스님 약력

- 1949. 5 윤하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59. 4 석존 후 제78세 법승
- 1959. 10 통도사 강원 강사 역임
- 1965. 10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83종의 經 역출
- 1979.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역임
- 1996. 봉선사 능엄학림 강주 취임
- 2001. 한글대장경 전318권 완간
- 2001. 4 봉선사 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敎宗本刹 奉先寺 주지 인목

금생에 이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도서출판 禪 발간 인기 도서
참선교육1,2·경허선사일대기·인과경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출시

참선교육 테이프 5종세트

1. 참선의 자세 2. 참선의 종류
3. 선종발달사 4. 화두의 중요성
5. 화두 참구법

주문예약 폭주

초보자를 위한 '알기쉬운 썩썩' 능엄경강의 Tape 1~10
초보자를 위한 '알기쉬운 썩썩' 능엄경강의 Tape 1~5
초보자를 위한 '알기쉬운 썩썩' 참선교육 Tape 1~5
초보자를 위한 '알기쉬운 썩썩' 인과경 Tape 1~5
초보자를 위한 '알기쉬운 썩썩' 화두강의 Tape 1~3
초보자를 위한 '알기쉬운 썩썩' 법성계 Tape 1~5

현담스님의 알기쉬운
썩썩 능엄경

강의테이프 10종세트→2만원

1. 능엄경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동기
2. 업을 짓는 근본
3. 맺힌 것을 푸는 법
4. 능엄 다라니를 외우는 공덕
5. 50가지 마가 생기는 원인
6. 50가지 마의 종류
7. 10가지 신선 8. 아나과의 문답
9. 귀신의 종류 10. 부처님의 위신력

문체부등록 제632호 구입문의 ☎ 삼영불교음반 053)427-8531<불교최대 녹음 전문업체>

한국의 선불교를 일으킨 경허대선사 (1846 ~1912)의 일대기를 탄생에서 삼수 갑산에서 열반에 드실때까지의 행적을 추적, 일반 불자들에게는 베일에 가려진 역사 속 흔적을 만나다. 미처 밝혀지지 않은 북방에서의 수행기록 등을 재구성하여 대선사의 행장을 일화의 형식으로 소개.

인과법은 1미리 오차도 나지 않습니다. 어느 생 어느 곳이고 자기가 지었던 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 : 현담스님 / 구입문의 운주사 02)3672-7181